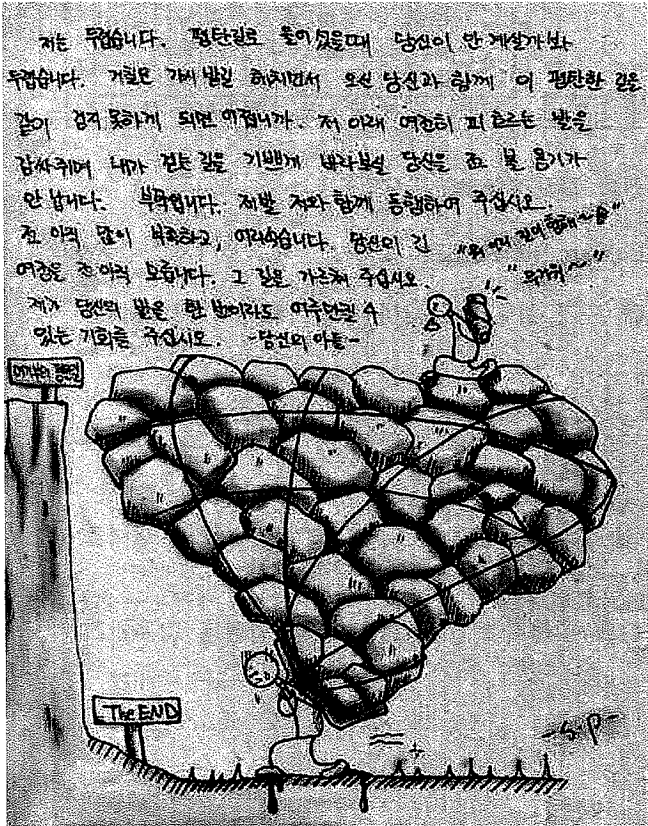


◀기쁜 우리 날들▶ 아버지라는 이름의 무게



“저는 두렵습니다. 평탄한 길로 들어섰을 때 당신이 안 계실까 봐 두렵습니다. 거칠은 가시밭길 헤치면서 오신 당신과 함께 이 평탄한 길을 같이 걷지 못하게 되면 어쩍니까? 저 아래 여전히 피 흐르는 발을 감싸 쥐며 내가 걷는 길을 기쁘게 바라보실 당신을 전 볼 용기가 안 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저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시오. 전 아직 많이 부족하고 어리석습니다. 당신의 긴 여정을 전 아직 모릅니다. -당신의 아들-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발을 한번만이라도 어루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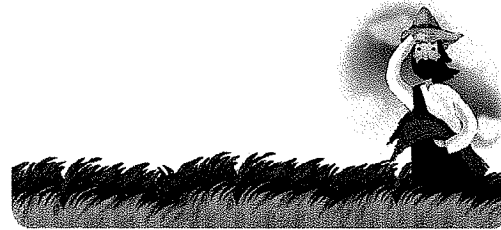


◀그리운 날의 흑백TV▶  
개구쟁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광고카피 중 이만큼 히트를 한 멘트도 드물 겁니다. 아들의 머리를 잡아 흔들며 대견해 하는 어린이 영양제 광고속의 아버지의 멘트 “개구쟁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는 모든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광고속에 박노식씨 아들로 나온 아이가 실제 아들인 탤런트 박준규씨의 11살 때 영음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제는 나도 광고속의 아들보다 더 큰 아들을 두었지만 마음으로는 아직 그 멘트를 말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교회 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지금보다 조금 더 시간 내는 기도생활(마태 7:8) <b>갈보리교회</b>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8권 16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6년 4월 23일
☎ 369-5077.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www.calvary.org.nz		

◀하나님! 나의 하나님▶ 권서(勸書)

박명수 교수<서울신대 신학대학원장>



초기 선교사들은 한국기독교인들을 “성경을 사랑하는 자들” (Bible Lovers)라고 불렀습니다. 한국교회사에서 이름없이 성경을 반포한 이들이 수천명 있었는데 이들이 권서(勸書)들입니다. 권서들은 등에 ‘복음짐’ (성경책)을 지고 삼천리 방방곡곡을 다니

면서 성경을 보급했습니다. 복음에 관심을 가지는 자들이 발견되면 그 곳에서 밤을 새며 성경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권서의 길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종종 서양귀신에 썩었다면서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터져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목숨도 내놓아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에게 ‘한 권의 성경보다 한 줌의 쌀’이 더 필요한 것 같았지만 권서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민족의 살 길이며 이 땅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생명 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악착같이 성경을 팔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곡식 생선 달걀 옷 성냥 등으로 성경과 교환해줬습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자신들이 대신 지불하고 성경을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권서 안교철의 이야기는 이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나는 오늘 한 가난한 여인에게 성경을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는 돈이 없어서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달걀이라도 한 개 주면 성경을 팔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는 ‘하루에 한 끼 먹고 사는데 오늘은 그것도 먹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너무나 불쌍해서 돈을 대신 내고, 성경을 주며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성경을 받아두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잠시 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내게 동전을 내밀면서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책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돈을 이웃집에서 빌려왔습니다. 책값으로 받아 주십시오.’ 내가 한사코 괜찮다고 거절했지만 그 여인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초기 한국 신자들은 끼니도 먹지 못하면서 한 권의 성경을 사서 읽었습니다.

◀말씀따라 행하기▶  
아담이 외로울 때 하나님은 그를 위해 열 명의 친구를 만들어 주지 않고 한 아내를 만들어 주었다.

◀인품따라 행하기▶  
남을 심판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시간이 없다.

# 주 일 예 배

(\* 표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 광 송 Gloria	Calvary	다 같 이
참회와 소원을 위한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23장	다 같 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14(시 46편)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인 도 자
찬 송 Hymn	404장	다 같 이
기 도 Pray		정덕수 장로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요한복음 21:1-14	인 도 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성가대
설 교 Sermon	부활 후 만남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402장	다 같 이
헌 금 기 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 ◆4월 예배위원◆

일자	기 도	헌금위원	안 내
26	이규임	차현주	<본당> 김순자 노은숙
2	이재영	추미선	
9	장현중	최현철	
16	고대아	한상미	<현관> 김교섭 이광희
23	정덕수	한상숙	
30	정희자	한상순	

### ◆4월의 교회력◆

주 일	예배와 모임
2	월초새벽기도회(1) 구역예배(7)
9	종려주일 고난주간새벽기도회 (10-15)
16	부활주일 성금요연합예배(14)
23	
30	이삭줍기주일

2006년 신앙생활: 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위해 5분

매일 교회위해 1분

매일 남을위해 1분

『교회등록』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 그래야 바른 판단이 섭니다

주일예배.이동, 학생: 낮 12시 | 수요일예배: 7:30 pm | 새벽기도회: 금 5:55 | 청년부: 토 오후 5시

#### 1. 교우소식

<등록> 홍성룡 안수집사, 장정희 집사(4여선교.5구역).

초롱(청2)은지(학생부)

☎ 368-9200 2/16 Balfour Rd. Parnell

#### 2. 다음주일은 이삭줍기 주일

\*한 달 간 모은 Silver Coin을 드려 고국과 동남아 어린이들에게 사랑의 도움으로 보냅니다

#### 3. 수요일예배 <수요일 저녁 7:30분>

\*일주일의 밤들 중에 수요일 밤 한 시간정도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구별함도 거룩한 생활입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 4. 금요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5:55분. 교회>

\*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아직 어둠이 새벽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여명을 맛 봅니다

#### 5. 학생부, 청년부 수련회 잘 마쳤습니다.

\*지난주간 가졌던 학생, 청년들의 수련회에 기도, 봉사, 비용 지원등 감사합니다.

#### ◀착한 시인▶ 죽란시서첩(竹蘭詩書帖) 다산 정약용

살구꽃이 처음 피면 한번 모이고,  
복숭아꽃이 처음 피면 한번 모이고,  
한여름 참외가 익으면 한번 모이고,  
서늘한 초가을 서지(西池)에 연꽃이  
구경할 만하면 한번 모이고,  
국화꽃이 피면 한번 모이고,  
겨울이 되면 큰 눈 내리는 날 한번 모이고  
한 해가 저물녘 화분에 심어둔 매화가  
꽃을 피우면 한번 모이기로 한다(종략)..  
정기 모임 외에 아들을 낳은 사람이 있으면 한턱내고, 고을살이를 나가는 사람 있으면 한턱내고, 승진한 사람도 한턱내고, 자제가 과거에 합격한 사람도 한턱내도록 한다.

다산 정약용이 또래 친구 15명을 모아 시 짓기 모임을 구성하고 모임의 규례를 직접 만들었다는데 그 규례조차 참 시적입니다.

우리도 얼마인지 모르는 지구의 역사속에서 같은 시대를 살아가게 된 것, 삼천리 반도에서는 일면식 없이 살다가 이곳에서 만나 살아가게 된 것, 많은 교회 중 같은 교회에서 만나 신앙 생활하게 된 것, 이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그러니 다치지 않도록, 아픔 없도록 사랑을 주거나 받거나 하며 지내야 할 사이....